

Star장산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장산면 · 신암면 · 화면

<장산면목>



비파나무

<장산면화>



모란



- Sea : 바다
- Agriculture : 농업
- Tradition : 전통
- Road : 길

장산면은 청정해역의 섬으로 전통과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내 안에 살아 숨 쉬는 장산 | 인쇄일 2008년 2월 28일 | 발행처 장산면 · 신안문화원 | 편집인 김진오 · 최성환
전 화 061-271-2532(장산면), 061-242-8131(신안문화원) | 출판처 맥디자인(061-282-4331)

※ 이 책은 신안군 신활력사업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음.

Star장산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장산면 · 시아문관광역



장산면으로 초대

유구한 역사와 민속예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한 장산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자료는 장산면의 현황, 역사, 문화유적, 지명유래, 민속문화, 관광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자료집입니다. 수록 내용은 장산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장산면 소장 각종자료
- 이길룡, 《신안군은 소왕국》, 1999
- 신안군 · 목포대박물관, 《신안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8
- 신안군, 《신안군지》, 2007
- 김진오, <난중일기 속 발음도는 장산도>, 《신안문화》, 신안문화원, 2004

장산면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천연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장산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일러두기

- 지명유래 및 입향조 관련 내용을 구전과 자료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자는 ()안에 표기하였고, 발음이 다른 경우와 보충설명은 []안에 표기하였습니다.
- 본 책자의 소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나 새로 제보할 사항이 있으면 장산면이나 신안문화원으로 연락바랍니다.

역사와 민속예술의 섬, **장산**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목차

- 02 일러두기
- 04 I. 장산면 소개
- 07 II. 역사속의 장산
- 14 III. 장산면의 문화유적
- 25 IV. 지명유래와 입향조
- 48 V. 장산면의 민속문화
- 60 VI. 장산팔경
- 61 VII. 기관 및 단체
- 62 VIII. 장산면 관광안내자료



I. 장산면 소개

산 줄기가 오음산에서 아미산을 거쳐 대성산에 연결되고, 여기서 비둘기산, 부학산, 중용 뒷산을 거쳐 활목까지 산줄기가 끊기는데 없이 길게 연결되었다고 하여 장산(長山)이라 칭한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유적이 두루 남아있고, 장산들노래를 비롯한 민속예술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역사와 민속예술의 고장이다.





1. 연혁

상고시대 : 마한에 속함

삼국시대 : 백제 물아부(勿阿部) 거지산현(居知山縣) 또는 굴지산현(屈知山縣)

통일신라시대 : 안파현(安波縣) - 압해군(壓海郡)의 영현(領縣) [경덕왕(景德王) 16년, 757년]

고려시대 : 태조(太祖) 23년(940년)에 장산현(長山縣)으로 바뀌었다가 나주목(羅州牧)에 속함.

조선시대 : 지도군(智島郡)에 이속(고종33년, 1896년)

1914. 3. 1 : 무안군에 편입

1963. 1. 1 : 법률 제1175호로 진도군 조도면 마진도리(마진 울도 저도)장산면에 편입

1969. 1. 1 : 법률 제2059호로 무안군에서 신안군이 분군되어 현재에 이름.

1990. 8. 1 : 대통령령 제13046호 시군 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의하여 마진도리 내의 저도가 진도군 진도읍에 이속.

2.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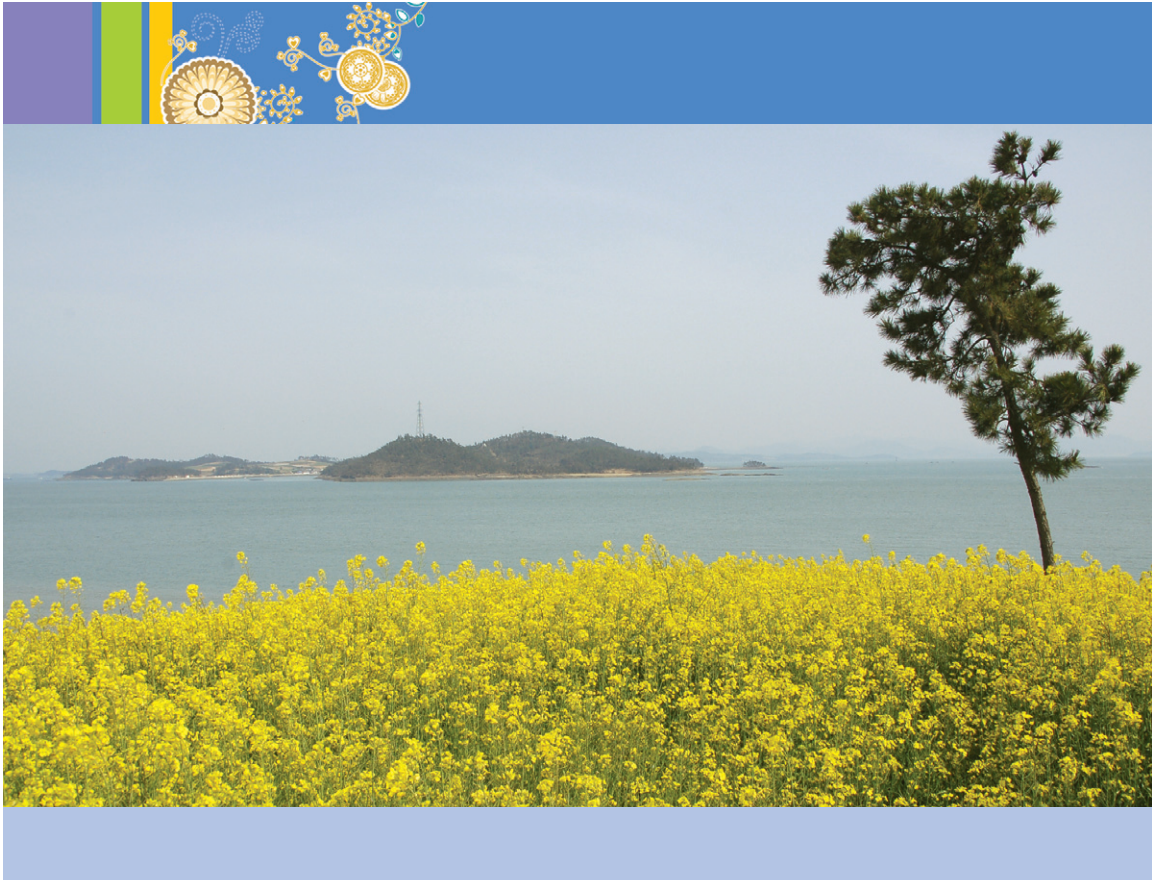
장산면은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27.8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에는 시하(時下)바다를 사이에 두고 해남 화원반도, 남쪽은 바다 건너 진도, 서쪽은 바다 건너 하의도, 북쪽은 바다 건너 안좌도로 둘러싸인 섬이다.

3. 지세(地勢)

산이나 구릉지를 개간하여 밭을 이루었고 간사지를 매립하여 논과 염전을 만들어 미백(米麥) 위주의 영농을 하고 있으며, 큰 바다와 접하지 못한 도서이기 때문에 어업은 발달치 못하였고, 얕은 바다의 갯벌을 이용해 연안에는 김 양식업이 활발하다.

높은 산이 없으며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강우량이 풍부하여 식물이 잘 자라 각종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신안제도군 가운데 가장 남단에 위치하여 해로를 통해 먼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4. 면세(面勢)

삼국 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여 거지산현으로 인근 도서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장산이라 부르게 된 것은 고려 태조23년(940년)에 장산현이 설치되면서 장산으로 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유인도5, 무인도 35개, 해안선이 76.6km, 면적은 30.2km, 2007년말 1,954명으로 남자 984명, 여자 970명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이다.

965가구 중 비농가 75가구를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어겸업으로 54가구는 김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체도(體島)에 전체 인구의 90%가 살고 있으며 섬의 형태가 둥글고 면소재지에서 7km 이내에 마을이 형성되어 낙도를 제외한 행정 수행 조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Ⅱ. 역사 속의 장산

1. 장산도의 역사적 흐름

상고시대에는 마한 권역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여 거지산현(居知山縣), 통일신라시대 안파현(安波縣)으로 바뀌었다가 장산이라 부르게 된 것은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장산현(長山縣)이 설치되면서 장산으로 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삼국시대 이래로 고려말기 폐현[장산폐현(長山廢縣) -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기록] 되기까지 장산도는 현이 설치되어 인근도서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중요한 섬이었다. 장산도는 신안군의 섬들 가운데 가장 남단에 위치하여 해로를 통해 원해(遠海)로 나가는 길목이다. 고대 바닷길에서 장산도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기에 장산도에 잠시 머물면서 주변의 정세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시대 각종 지도에 장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 그 중요성과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2. 시대별 변화

1) 백제 - 거지산현(居知山縣)

백제 때는 거지산현 혹은 굴지산현으로 불렸으며 백제의 한 현이었다. 이시기에 서남해안 및 도서 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의 현치소(縣治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안제도에는 장산도와 압해도에 거지산현과 아차산현(阿次山縣)이 있었고, 진도에 인진도군(因珍島群), 주산현(走山縣), 매구리현(買仇里縣)으로 불려진 백제의 군현(群縣)들이 있었다.

서남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은 당시의 주요 해상 활동과 연관된 교통의 요지였던 관계로 결국 내륙의 어느 지역과 못지않은 많은 군현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남 해역을 통과하는 해로를 사이에 둔 당시 섬들의 행정 판도는 장산도에 설치되었던 거지산현과 압해도에 설치되었던 아차산현이 장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서남 해안 지역이 그러하듯이 사실상 신안제도가 완전한 백제의 세력 판도에 드는 것은 상식적인 연대보다는 늦을 것으로 보인다. 장산에 거지산현이 설치된 확실한 연대가 있다면 이러한 추측과 가정은 무의미할 것이지만 적어도 백제의 치소(治所)인 현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복속지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그 시기는 마한복속[馬韓服屬 369년 - 근초고왕 24년]보다 훨씬 후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정을 한다면 그 시기는 백제 문주왕(文周王)~동성왕대(東城王代, 서기 475~500년)를 전후한 시기로 근초고왕대의 마한 복속 이후라 해도 서남 해안 지역의 마한 잔여 세력은 독자적인 문화 기반 위에서 토착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 주었을 것이다.

장산중학교 위 석실분은 ‘괴임석’ 석실분으로서 백제의 석실분 양식 중 후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고분들은 백제가 금강 유역(공주公州·부여夫餘)으로 천도 남하 한 이후 생겨난 묘제였음을 감안할 때 그 시기는 6세기 이후가 된다. 이러한 석실분의 축조는 백제의 중앙 지배 세력이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들의 진출은 ①토착 세력을 도태·축출하는 경우 ②토착 세력과 결합하는 경우 ③정책적으로 새로운 전략 기지를 마련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백제 시대의 유적으로 거지산현의 고성지는 현재 남아 있는 성축(城築)이 백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해도 실제로는 이들 시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개축·수





축되고 때로는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발굴을 통하지 않고 정확히 판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가지고만 말할 경우 아미산-대성산-용골-공수-활목을 연결하는 토성의 흔적으로 미루어 백제 시대 현치소를 외곽에서 막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개 서남해안 지역의 백제 성지들은 읍치성의 형태로 해발 100~150m 정도의 주변 경관이 양호한 곳에 흙과 돌을 혼합 또는 토성의 형태로 나타나며 모두가 해안에 가깝고 해로와 연결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성지(城址)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장산초등학교 남쪽 약 200m 지점 통머리로 가는 길 우측 밭(202-1번지 등 5필지 9927㎡)이 현터라고 전해 오는 것으로 보면 대리와 도창리 어간이 현치성지가 될 것이다.

2) 통일신라 - 안파현(安波縣)

통일신라기로 접어들면서 우선 현의 명칭이 거지산현에서 안파로 바뀌면서 이 지역을 관할 예속시켰던 상급 군현이 압해군으로 나타난다. 압해군은 신안제도와 해안에 붙은 4개 군현(郡縣, 군1 현3)으로서 통일신라 말기에 가서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나주를 서로 차지하려고 쟁패를 벌일 때 철저한 후백제 지원 세력이 된다.

안파현의 경우도 압해군의 이러한 성격과 보조를 같이했으리라 짐작되며 결국 이 같은 전환기에서 패자측 입장에 섰던 압해군과 인접된 지역들은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한 뒤 이룩한 새로운 편제 속에 처했다.

3) 고려 - 장산현(長山縣)

왕건이 반도의 서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최후의 목표는 나주 점거였으나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서남 해안 및 도서 지역 세력의 친후백제적인 편향과 반발은 매우 거센 것이었다.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통일된 정권을 수립한 뒤에도 이 지역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다. 왕건은 그러한 견제의 방법으로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세력이 부식된 나주·영광을 거점으로 이들 반발 세력을 통치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장산의 경우도 고려 초에 진행되는 변화에 따라 지금의 이름 장산현으로 고쳐 나주에 예속시켰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고려사 지리지에는 안파현이 장산현으로 개명





(태조23년)되고 이 시기에 장산현의 관할 하에 있었던 도서들인 고삼도(古參島), 신이량도(新伊良島), 상어도(上於島), 안창도(安昌島), 아어도(阿於島), 송도(松島)가 고려사 지리지에 나타난다. 모두 현재의 지명과는 차이가 있어서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우선 안창도는 현재의 안좌도 중의 안창도임을 알 수 있고, 아어도는 하의도, 상어도는 상하태도(현 신의면)로 볼 수 있다. 대개 현재의 하의, 장산, 안좌도를 묶는 범위가 장산현의 영역이라고 보겠다.

4) 고려 말 ~ 조선 전기

장산은 삼국 시대 이래로 현의 치소가 마련되었던 도서 지역의 행정적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입장은 왜구의 창궐기를 맞으면서 쇠락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장산폐현에는 “因倭寇失土 僑居于此 在州南二十里(인왜구실토 교거간차 재주남이십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고 이 기록 속에 마치 장산현지가 나주의 20리 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장산폐현지인 ‘주남이십리’ 지역은 여말에 장산도민이 교거한 땅으로서 위에 든 연혁과는 무관한 단순한 지명이며 아마도 현재 나주 왕곡면 장산리 일대가 아닌가 추측된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집단 이주와 공도상태(空島狀態)는 모든 도서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이후 장산을 비롯한 도서 지역의 역사는 한동안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해안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던 세종대를 전후하여 새로운 도서 이주민들이 서서히 입도하였고 바로 조선 전기의 이 지역을 산주민들이었다.

조선 전기에 재이주하여 정착한 주민들은 현재 주민들의 직계혈족은 아니지만 당시대의 장산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며, 임란 이후에 새롭게 이주 정착하는 현 주민들이 소위 입도조라 부르는 사람들보다 앞서 살다가 교대된 선주민들이었다.

5) 조선 후기

조선 초기 이주민들은 자의적인 출륙(出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임란기에 대대적인 이주를 시도했던 것 같다. 현재 주민들의 직계 혈조로서 소위 입도조라 불리는 새로운 조선 후기 이주민들이 모두 임란 이후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3. 충무공 이순신과 장산도

《난중일기》중 발음도(發音島)는 장산도(長山島)이다

- 이순신의 애뜻한 사연이 담긴 장산도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의 경과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친히 기록한 일기를 말한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사의 기본사료이며 일기에 나타난 지명은 실증적 역사 연구의 중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난중일기》에 나타난 지명을 모두 현재의 행정 명칭과 대비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냄으로써 전적지의 위치, 전략 전술의 운용과 충무공 이순신의 활약을 정확히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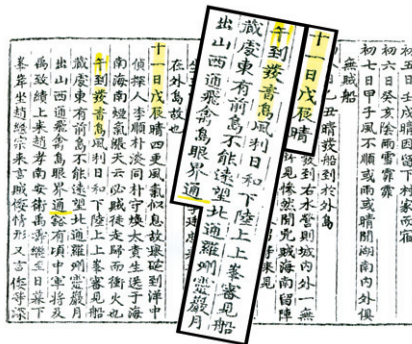
그 과정에서 유독 발음도(發音島)만은 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임진왜란사의 미해결 분야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장산도를 발음도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고장 장산도는 임진왜란기 발음도 또는 안평도라고 불렸으나 갖은 행정구역의 편제와 시대에 따른 행정 명칭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원래의 지명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

그러나 이 미지의 섬이 장산도라는 사실이 1999년 밝혀졌다.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발음도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十一日 戊辰 晴 午到 發音島 風利日和 下陸上上峯審見船藏處
東有前島 不能遠望 北通羅州靈巖 月出山 西通飛禽島 眼界通
“1597년(정유년) 10월 11일 맑음.

정오에 발음도에 도착했다. 바람이 자고 날씨가 온화하다. 배에서 내려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전선(戰船)을 숨겨둔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동쪽으로는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없었고,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 월출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비금도까지 통하여 눈앞이 시원하다.”





그동안 학계는 발음도가 팔금도(현 신안군 팔금면)의 오기일 것으로 추정하여 모든 임란관련 기록에는 발음도를 팔금도로 표기하였다. 발음도와 팔금도가 발음상의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팔금도는 위의 《난중일기》의 내용 즉,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 월출산이 보이고, 서쪽으로 비금도까지 통하여 눈앞이 시원하다는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미지의 섬 발음도를 장산도로 확신하는 근거는 첫째, 장산도의 옛 행정 명칭에서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안파현(安波縣)으로 부르게 된다. 안파(安波)와 안편(安便)은 모두 파도가 잔잔하다는 뜻으로 울돌목의 파도가 장산도 부근에 이르면 모두 잔잔해진다는 의미이다. 안파현 또는 안편도라는 명칭은 통일신라부터 1808년까지 사용되었음을 각종 지리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軍政篇) 4. 서해지남조(西海之南條)].

둘째, 발음도라는 명칭은 고요한 밤이면 울돌목의 소용돌이치는 물 울음소리를 장산도 주민들이 듣고 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섬이라 부른데서 연유한다. 사실상 울돌목과 장산도의 거리는 약 9.3km로 섬의 남단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진도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 울돌목의 물 울음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심하게 소용돌이치던 물결이 장산도 부근에 흘러오면 잔잔해진다.

셋째, 장산도의 위치가 《난중일기》의 기록과 가장 일치한다는 점이다. 장산도는 나주와 영암 월출산의 남쪽에 위치하며 비금도로 가는 해로가 확 트여있다는 점에서 장산도의 잃어버린 옛 이름이 발음도임을 확신하게 한다.

충무공 이순신이 장산도에 선단을 이끌고 체류한 기간은 159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6일간이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울돌목 해전)을 마친 후 잔류 선단을 이끌고 당사도, 어을오도(지도읍 어의도), 칠산도, 흥농고지, 고참도(위도), 고군산도, 법성포, 어의도, 우수영을 돌아 1597년 10월 11일 장산도에 이르렀다.

충무공 이순신이 장산도에서 체류한 16일간은 그의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런 기간이었다. 그것은 이순신이 장산도에 도착한지 3일되는 10월 14일 둘째 아들이 보낸 부고때문이다. 그가 사랑하던 막내아들(3남) 면(勳)이 아산에서 왜놈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순신은 당시 인간적 고뇌를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새벽 2시경 꿈에 나는 말을 타고 언덕에 올라 가다가 말이 발을 헛디더 냇물 한 가운데로 떨어져 곤두박질치는 순간 막내아들 면이 나를 끌어 안는 순간 꿈을 깬다.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에 천안에서 온 사람이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었다. 곁봉을 뜯기도 전에 온 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났다. 간신히 봉합된 곳을 열어보니 둘째 아들이 쓴 글씨가 보였다.

윗부분에 ‘통곡’ 두자가 보여 막내아들 면이 전사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도 모르게 간이 녹는 것 같은 슬픔에 목 놓아 울었다. 하늘이여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 못하십니까.

막내 면(薊)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잘못된 일이 어디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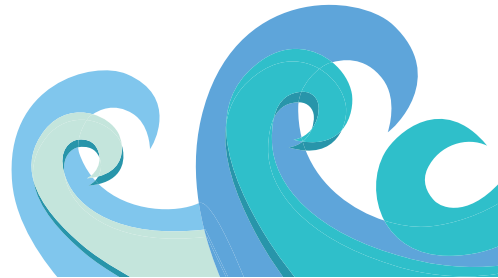
하늘이 캄캄하고, 태양 빛조차 검게 변했구나 가여운 내 아들 나를 두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한 너를 하늘이 시기하여 데려간 것이냐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네가 별을 받은 것이냐, 나 이제 세상에 있어 본들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느냐, 하루 밤을 지내는 것이 마치 일년 같구나”

위의 기록을 읽으면 가슴으로부터 가족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치솟게 하는 대목으로 충무공의 인간적 고뇌를 술회한 곳이 장산도였다. 충무공은 개인으로서, 수군통제사라는 공인으로서 심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극복하고 왜군을 제압할 새로운 수군기지를 모색한 곳이 바로 우리고장 장산도였다.

이와 같이 장산도가 임진왜란기에 충무공 이순신의 전적지임이 밝혀졌다. 앞으로 장산도를 충무공의 유적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호국의 전적지로 개발하여 신안의 역사 교육장으로 보전하였으면 한다.

또한 섬, 역사, 해양문화라는 자연적 요소를 결합시켜 지역적 차별성과 자원적 희소성을 잘 활용하여 매력 있는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문화가 있는 테마 섬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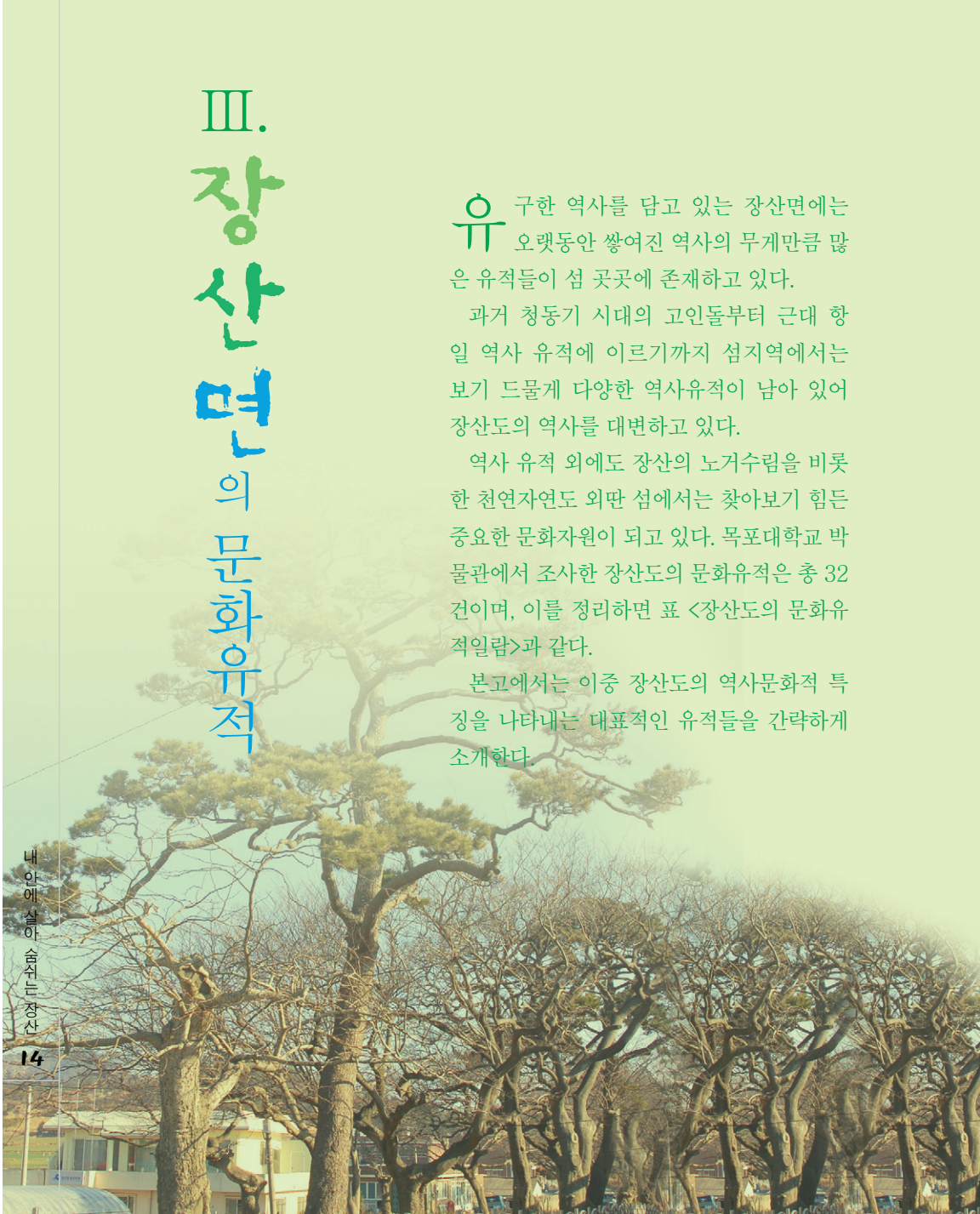
Ⅲ. 장산면의 문화유적

유 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장산면에는 오랫동안 쌓여진 역사의 무게만큼 많은 유적들이 섬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과거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부터 근대 항일 역사 유적에 이르기까지 섬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역사유적이 남아 있어 장산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역사 유적 외에도 장산의 노거수림을 비롯한 천연자연도 외딴 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문화자원이 되고 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문화유적은 총 32건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장산도의 문화유적일람>과 같다.

본고에서는 이중 장산도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적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장산도의 문화유적 일람

연번	유적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비고
1	장산도 들노래	장산면	미상	음악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2	오음리 오음유물산포지	오음리 오음마을	청동기	유물산포지	
3	대리 대신터지석묘	대리 430	청동기	지석묘	
4	대리 대리지석묘	대리 산259-1	청동기	지석묘	
5	대리유물산포지·장산현터	대리 대리마을	삼국~고려	유물산포지	
6	대리 김영택가옥	대리 458	조선	주거건축	
7	대리 송덕비군	대리 265-3	근대	비갈	
8	장병준묘	대리137-3	현대	선현유적	신안군 향토자료 제27호
9	대리 고인돌	대리 587	청동기	지석묘	
10	도창리 도창고분군	도창리 도창마을	삼국	고분	
11	도창리 도창유물산포지	도창리 도창마을	삼국~고려	유물산포지	
12	도창리 도창비군	도창리 도창마을	근대	비갈	
13	도창리 최복순가옥	도창리 191	조선	주거건축	
14	도창리 정민찬가옥	도창리 732	조선	주거건축	
15	도창리 노거수림	도창리 278	조선	노거수	전라남도 기념물 제100호
16	도창리 장산사창터	도창리 669-1	미상	생활유적	
17	도창리 두동지석묘	도창리 786	청동기	지석묘	
18	도창리 두동유물산포지	도창리 두동마을	삼국~조선	유물산포지	
19	도창리 석실고분	도창리 산93-1	삼국	고분	전라남도 기념물 제107호
20	팽진리 김희중효자각	팽진리 건넛돔마을	조선	유교건축	
21	팽진리 성기바위	팽진리 호피마을	미상	민속유적	
22	대성산성지	다수리 산100	삼국	성곽	신안군 향토자료 제15호





장산도의 문화유적 일람

연번	유적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비고
23	다수리 대성산봉수대	다수리 다수	조선	봉수	
24	장산목장터	다수리 산42-8	조선	마정	신안군 향토자료 제29호
25	다수리 다수보호수	다수리 다수마을	조선	노거수	신안군보호수 10-27-8
26	다수리 막금보호수	다수리 산142	미상	노거수	신안군보호수 15-22-10-2
27	다수리 섬막금보호수	다수리 산144	미상	노거수	신안군보호수 15-22-10-3
28	다수리 막금제당	다수리 막금마을	미상	민속유적	
29	다수리 통머리고분	다수리 통머리마을	미상	고분	
30	다수리 통머리민묘	다수리 382	조선	조선묘	
31	장산토성지	오음리, 도창리, 대리, 다수리, 공수리 일원	삼국	성곽	신안군 향토자료 제14호
32	마진리 울도제당	마진리 울도마을	미상	민속유적	





1. 지석묘(고인돌)

지석묘의 분포는 서남부인 아미산과 대성산을 연결하는 구릉(丘陵)의 좌우에 분포되어 있고, 평지 혹은 20~40m 높이의 구릉 경사면에 현재 4기가 남아 있다. 전남 지방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석묘가 수천 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 문화적 기반이 매우 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들 문화가 섬 지방에까지 파급되어 청동기 문화인들이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신터 지석묘

대리 대신터 마을 북쪽에 인접해 있는데, 장산중학교에서 동쪽으로 100m쯤 떨어진 지점으로 밭 430번지에 위치한다. 이 지석묘의 상석은 장축이 470cm, 폭이 250cm, 두께가 95cm로 타원형을 이룬다. 장축방향은 북서-동남이고, 지석은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모두 7기의 지석묘가 있었으나, 오래전에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지석묘 부근에는 토기편과 자기편이 산재해 있으나 무문토기편은 찾아볼 수 없다.

장산초등학교 뒤편 지석묘

대리 장산초등학교 서쪽 언덕위에 위치하는데(산 259-1), 이곳은 경주정씨선산으로 현재 상석만 노출되어 상석의 크기는 장축이 530cm, 폭이 170cm, 두께가 50cm로 마름모형이며, 장축방향은 남서-동북이다. 잡초와 흙에 하부가 묻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리2리 지석묘

장산중학교를 지나 아미산 남쪽 언덕을 넘어 약 800m 쯤 내려가면 평탄지가 눈과 접하는데 이 평탄지에 3개의 지석묘가 남북으로 약 300m 거리를 두고 있다.

북쪽의 것은 밭587번지에 있는데 상석은 남북방향이고 그 크기는 장축이 365cm, 폭이 305cm, 두께 80cm의 부정원형을 이루고 있다. 남쪽은 땅에 닿고 북쪽은 지상에서 1.4m 높이 위로 들려있고, 하부에는 지석이 1개 받치고 있다.

남쪽의 604-1번지 지석묘는 상석의 크기가 장축이 200cm, 폭이 170cm, 두께가 50cm이고 형태는 원형을 이룬다. 북쪽이 낮게 기울어져 있다.





대리밭 587번지 지석묘

그러나 현재는(2007년) 농경지 개간 및 도로공사로 인해 2기는 멸실되어 안타깝다.

도창리 중학교 뒤편 지석묘

장산중학교 서쪽 100m 지점으로 삼배로 넘어가는 고개 북쪽 밭 786번지 가운데에 위치한다. 상석의 크기는 장축이 305cm, 폭 243cm, 두께 50cm로 그 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남서-동북이다. 동쪽편 상석은 노출되었으나 반대편



도창리 중학교 뒤편 지석묘



은 잡초에 덮여 있어 하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1966년 조사시에 대리 대신터에 지석묘가 2기 있었으나 파괴되었고 대리1리 경로당 부지에 북방식 지석묘가 있었으나 1979년 마을회관 건립시 파괴되었다고 한다.

2. 도창리 백제석실분

■ 소재지 : 도창리 산 93-1번지 496㎡, 밭 790번지 165㎡, 밭 802-1번지 397㎡.

장산중학교에서 동북쪽으로 약60m지점, 아미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다.

묘실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고 묘광은 묘실이 지하에 묻히도록 뚫으나 경사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도(羨道)의 앞부분은 지상에 노출된 반지하식으로 볼 수 있다. 현실(玄室)과 연도(羨道)의 방향은 남북이고 현실의 장변은 258cm, 단 변은 176cm, 천정의 높이는 167cm이다. 천정은 평사천정[平斜天井- 괴임식]이고 연도는 남쪽 중앙부에 연결되어 있다.

묘실 조영에 쓰인 석재는 주로 화강암계의 넓은 자연 판상석을 잘 다듬어 구축하였다. 벽석은 모두 대형 판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은 백제시대 말기의 양식으로 공주, 부여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시기 도서지역에도 석실분을 조성할만한 세력이나 지배층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원이다.

전남지방에서는 해남 월송리, 나주 대안리 등지의 백제 석실분이 조사되었으나 이 무덤과 같은 양식은 전남 지방에서 유일한 것이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제107호 (1987. 6. 1)로 지정되어 1990년에 봉분 복원 작업을 하였다.



도창리 백제석실분



3. 기타 고분군

다수리 고분

통머리 마을에서 약 400m쯤 가면 길 좌편에 양씨 선산이 있고, 그 가운데 고분이 위치한다. 이 고분은 직경이 8.8m이고 높이가 1m전후이며 주위에 호석과 같은 석재가 2개 보인다. 중앙부에는 구덩이가 파져있어 도굴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항아리와 엽전이 나왔다고 한다. 현재 소나무와 잡초가 무성하여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도창리 고분군

도창리 면소재지에서 토미산 쪽으로 약 500m가면 길 좌측, 구릉 남쪽 경사면에 직경 4~5m, 높이 1m 내외의 봉분이 4~5기 분포하고 있다. 이들 봉분위에는 석재가 노출되어 있어 역시 석실분계통의 고분들로 추측된다.

4. 장산현터(縣址)

■ 소재지 : 대리 밭 202-1번지 2,112㎡, 밭 202-2번지 3,491㎡, 밭 209번지 2,324㎡, 밭 210번지 1,197㎡, 밭 211번지 803㎡.

장산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약200m 지점 길 우측 밭 (5필지 9,927㎡)이 장산현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유물산포지는 남쪽에 형성된 대성산 (196m)에서 뺏어 나온 산맥이 동서 양방향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며 북쪽으로는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 곳 밭에서 1930년경 길이 210cm 둘레 90cm로 추정하는 육각형 돌기둥 1개와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최근 목포대학교 조사에서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 삼

국시대의 유물과 고려시대의 청자해무리굽완, 도기편, 기와편 등이 확인되고 있어 장산현터를 포함한 유물산포지로 주목되고 있다.





5. 토성(土城)

아미산에서 대성산과 용골, 공수리 한불잔등, 중용뒹산, 활목에 이르기까지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기록도 반출 유물도 없어 그 연대를 알 수 없다. 백제 시대 현치소를 외곽에서 막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개 서남 해안 지역의 백제성지(百濟城址)들은 읍치성(邑治城)의 형태로 토석혼축 혹은 토성으로 해안과 가깝고 해로와 연결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장산면에 남아 있는 토성도 서남 해안 지역 백제성지의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6. 대성산성

■ 소재지 : 다수리 산 100번지 2,083m²

대성산(196m)의 정상부에 현존하는 성의 높이는 4m, 폭은 2.5m인데 화강암체를 다듬은 돌로 아주 정교하게 쌓아올렸으며 남쪽 부분의 약 100m가량은 잘 보존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허물어져 있다.

임진왜란 때 쌓았다고 전하나 무문토(無紋土) 기와에서 문양이 정교하며 유약을 칠한 것까지 기와편 6종이 습득된 것으로 보아 임란 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깨진 기와편과 불에 탄 쌀덩이 숯을 찾아볼 수 있다. 봉화대로도 활용되어 서남해 도서지방을 관찰하던 장소였던 곳으로 추측된다.



7. 장산목장

대성산 증턱에 목장터의 돌담이 흩어져 있다. 목장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우마를 사육했던 장소로 소보다는 말을 사육하여 군마, 역마를 공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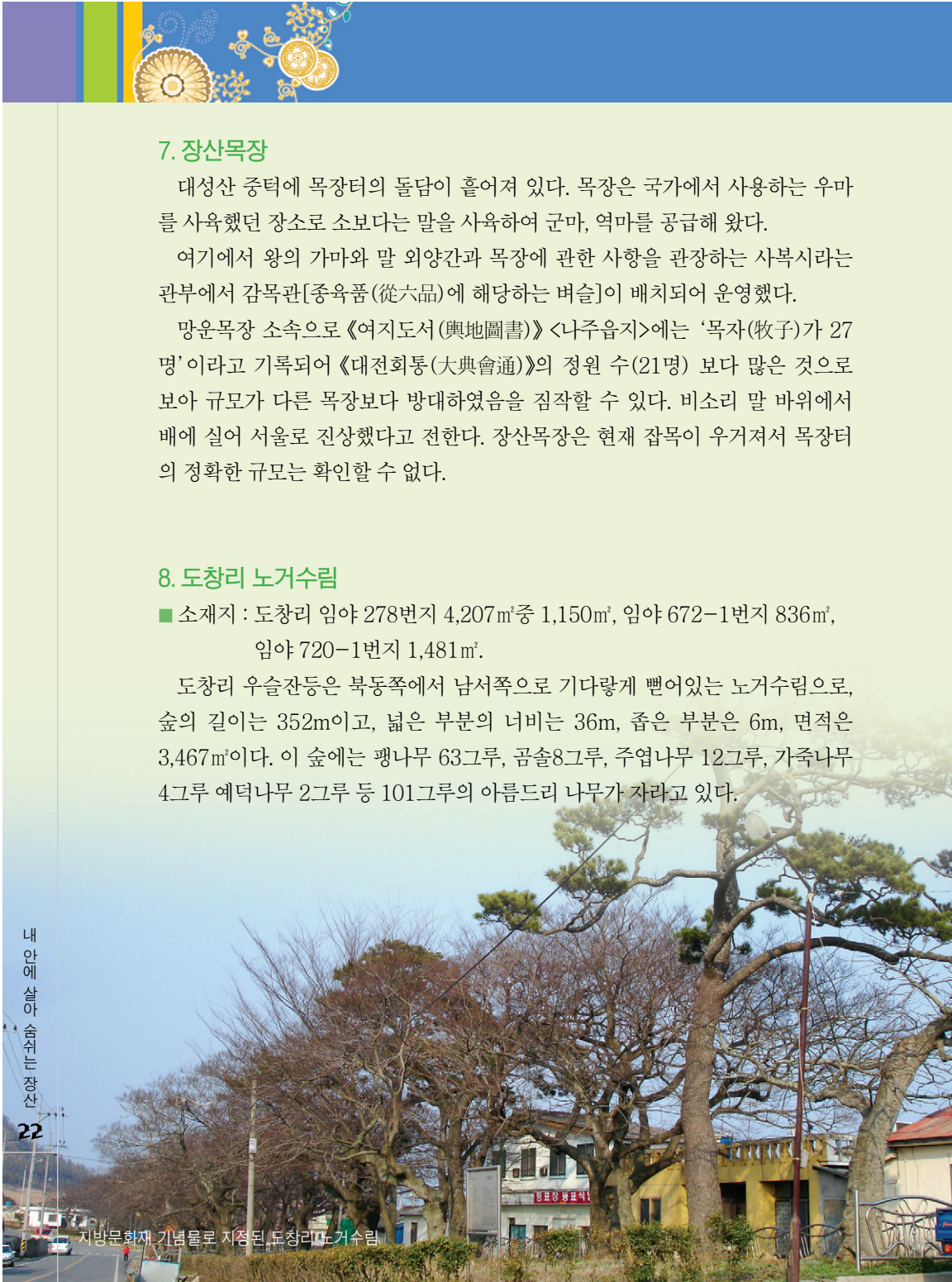
여기에서 왕의 가마와 말 외양간과 목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복시라는 관부에서 감목관[종육품(從六品)에 해당하는 벼슬]이 배치되어 운영했다.

망운목장 소속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 <나주읍지>에는 ‘목자(牧子)가 27명’이라고 기록되어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정원 수(21명)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규모가 다른 목장보다 방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소리 말 바위에서 배에 실어 서울로 진상했다고 전한다. 장산목장은 현재 잡목이 우거져서 목장터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8. 도창리 노거수림

■ 소재지 : 도창리 임야 278번지 4,207㎡중 1,150㎡, 임야 672-1번지 836㎡, 임야 720-1번지 1,481㎡.

도창리 우슬잔등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기다랗게 뻗어있는 노거수림으로, 숲의 길이는 352m이고, 넓은 부분의 너비는 36m, 좁은 부분은 6m, 면적은 3,467㎡이다. 이 숲에는 팽나무 63그루, 곰솔8그루, 주엽나무 12그루, 가죽나무 4그루 예덕나무 2그루 등 101그루의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 숲의 조성 유래는 첫째 사창마을에 양곡보관 창고가 있어 이 지역 여러 도서의 양곡을 보관하는데 왜구가 침입하여 도적질을 하므로 양곡보관 창고를 은폐하기 위해 위장 숲으로 조성하였다는 설과, 둘째 도창마을의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조성 되었다는 설, 셋째 풍수지리설로 도창마을이 숲의 형국이고, 마을 앞에서 보았을 때 이 숲의 뒤로 보이는 아미산이 말[斗]에다 곡식을 가득히 부어 놓은 형국으로 쌀과 보리 등 식량에 비유되며, 마을 앞 저수지는 식수를 뜻하고 저수지 옆 주걱머리는 밥주걱 형태로, 아미산의 쌀을 저수지 물로 씻어서 마을 터의 숲 형국인 숲에다 밥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쌀감인데 이 숲의 나무들이 쌀감 구실을 해야 마을이 번창한다는 풍수지리학설을 믿고 우리 선조들이 조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는 1km로 비둘기산 KT 장산지소 부근까지 조성되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352m만 노거수림이다. 숲한 세월 갖은 풍상을 이겨내고 곳곳히 서 있는 노거수목은 우리의 기상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이 값진 보물을 알뜰한 정성으로 가꾸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도창리 노거수림은 1987년 1월 15일,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100호로 지정되었다.

9. 장병준묘

■ 소재지: 장산면 대리 137-3

유적현황 : 장병준(1893~1972)은 장산면 대리에서 인동장씨 진섭과 하동정씨 사이의 4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1919년 3월 18일 무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일경의 체포령이 내리자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의정원 재무부차장으로 활약하였다.

1920년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하여 3·1운동 1주년 기념식 때 유달산에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7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의원으로 선임되어 독립운동에 힘썼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부위원장, 한민당 광주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해방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에 헌신하였다. 1972년 3월 16일 79세의 일기로 서거하였으며, 1980년 건국포장·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 되었다. 대리마을에 선생의 생가터가 복원되어 있으며, 기념비는 도창리 분재공원에 세워져 있다. 2006년에 유해가 국립묘지로 이장되었으며 현재는 빈 무덤이 남아있다.



10. 팽진리 김희중 효자각(彭津里 金喜重 孝子閣)

팽진리 건넛돔마을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효자 김희중은 장산면에서 부친과 딸을 데리고 해남 우수영 본가에 가기 위해 목선을 이용 항해 중 돌풍으로 배가 침몰위기에 처하자 부친을 구하고자 8살 된 딸을 용왕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파도가 더욱 거세어지자 선원에게 부친의 안녕을 부탁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바쳤다. 부친 또한 바다에 투신하였는데, 당일 밤 전라 좌수사의 꿈에 우수영 내동 해변에서 한사람을 구하라하였다. 꿈에서 본 내동 해변가로 가서 김희중의 부친을 구했다. 이를 전라 좌수사가 조정에 알려 1753년(영조29)에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효자각이 건립되었다가 1935년 김해김씨 문중에 의해 장산도로 이진되었다. 효자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내부에는 비가 세워져 있고, 효행 사실이 적힌 편액이 걸려있다. 효자각과 관련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孝子贈春秋館事承政院左承旨金公喜重之閭 : 1753년 영조가 김희중에게 효자를 포상한 내용이다. 김희중은 춘추관사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 되었다.
- ② 孝子金君旌閭記 : 김희중의 효행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③ 孝子金喜重之閭 : 효자 정려를 포상한 사실이 기재된 편액이다.





장산도에는 고대 선사유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말 조선초기까지 진행된 공도정책(空島政策)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섬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정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시절을 겪어야 했다. 현재 장산도 여러마을을 구성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조는 대부분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새롭게 정착하여 들어온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문화적 면모를 지명유래와 입향조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지명이나 입향조 유래와 관련해서는 기록과 구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섬문화를 깊이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지명유래와 입향조



1. 장산

삼국 시대 백제 때는 거지산현, 고려 때는 장산현이라 하였으며, 산줄기가 오음산에서 아미산을 거쳐 대성산에 연결되고 여기서 비둘기산, 부학산, 중용마을 뒷산을 거쳐 활목마을 산까지 산줄기가 끊기는 데 없이 길게 연결되었다고 하여 장산(長山)이라 칭하였다.

2. 오음리

면 소재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옥사지 간척으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북으로는 해발 208m의 오음산이 굽어보고 있다. 이 곳은 본래 지도군 장산면의 지역으로서 오음산 밑이 되므로 오음산, 오름, 오음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북강리, 시미리, 대머리를 합하여 오음리라 해서 무안군 장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된 지역이다. 현재 오음·북강·앞면·밭마구지·한샛골·뒷벌(後浦)은 오음1리, 시미, 광포, 동구섬, 신촌, 대머리[竹頭]는 오음2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1) 오음마을 (오음1리)

▶마을형성

1710년대 초 전주이씨 이란(李欄)이 의금부도사 재직시 모함에 의해서 유배 온 후 1년이 못 되어 해배(解配)되었으나 떠나지 않고 스스로 거문고와 책을 멀리 하면서 오음 산중에서 은거하여 전주이씨의 장산 입도 조가 되었다. 그 후 김해김씨는 후포마을에서 이웃 마을인 이곳으로 이주해 왔고, 창원황씨, 함양박씨는 하의도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함평노씨와 밀양손씨는 1900년대 초에 입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명유래

오음산이 다섯 봉우리이고 예로부터 노래를 잘 하는 명창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마을 앞 안산(案山)이 장구 형으로 소리의 고장이라 하여 오음이라 하였다.

2) 북강마을(오음1리)

▶마을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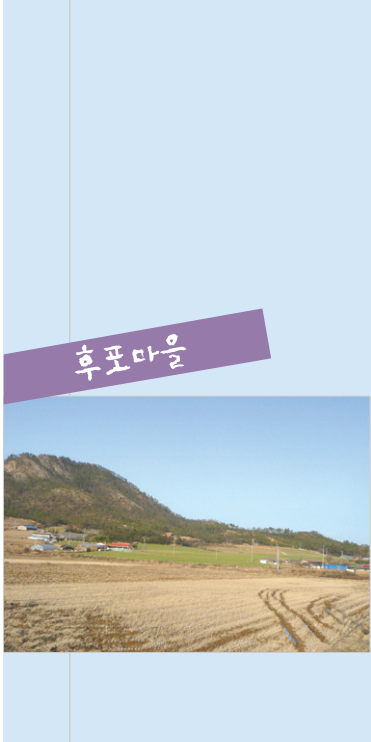
박씨가 가장 먼저 입향하였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고 1800년대 초 경주최씨 최병원(崔炳元)이 장택고씨와 안좌 소곡에서 이주하였고, 경주정씨 정기만(鄭奇萬)은 밀양박씨와 하의 대야도에서 풍족한 생활 터전을 찾아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함평노씨, 김해김씨 등이 이주하여 현재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곳은 장산면의 관문으로 정기 여객선인 철부도선이 기항하고 있다.

오음마을



북강마을





▶지명유래

마을이 장산도의 북쪽 첫머리에 있고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라 하여 처음에는 윤구지(尹衢地)라 하였으나 1930년 면의 관문인 선착장이 생기면서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고, 북쪽 어귀 바닷가에 위치한다 하여 북강(北江)이라 하였다.

3) 한샛골마을 (오음1리)

▶마을형성

김해김씨 김명철(金命哲)이 후포마을에서 1850년 경 한샛골마을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 어장을 개척하고 산기슭의 묵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 이주 정착하였고, 그 후 창원황씨가 오음마을에서, 전주이씨 이옥철(李玉喆)은 1966년 하의 장병도에서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이주 정착하여 지금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지명유래

마을 뒤쪽 오음산 골짜기에서 내려온 지세가 한새(황새) 형국과 같다 하여 한샛골이라 하였으며 크기에 따라 큰 한샛골과 작은 한샛골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4) 후포마을 (오음1리)

▶마을형성

김해김씨 김수명(金守命)이 암태도에서 살다가 1740년대 초 이 마을에 와서 지형을 살펴본 후 살기에 적당한 곳이라 하여 경주정씨와 혼인하여 정착하였고, 그 후 전주이씨, 창원황씨, 함양박씨 등이 오음마을과 인접해 있어 이곳으로 이주하였고, 밀양손씨 손완섭



(孫完變)은 1900년경 안좌 내호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이주하여 현재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지명유래

옛날에는 마을의 터가 포구(浦口)이고 오음마을 뒤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후포(後浦) 또는 뒷벌이라 부른다. 1946년 방조제 축조 공사로 지금은 포구가 논과 염전으로 조성되어 있다.

5) 시미마을 (오음2리)

▶마을형성

밀양박씨 박광환(朴光煥)이 1750년경 하의면 유호리에서 시미마을로 처음 이거 정착하였고, 김해김씨는 1780년경 대리에서, 전주이씨는 오음, 진주강씨는 대머리에서 이주해 마을을 형성하였다.

▶지명유래

마을 앞에 우물이 있어서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다 하여 시미(匙味)라 하였는데 한자어가 바뀌어 시미(是味)라 부르고 있다. 현재는 우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멸실되었다.

6) 대머리마을 (오음2리)

▶마을형성

진주강씨 강정삼(姜正三)이 1670년대 말 해남 우수영에서 살다가 살기 좋은 곳을 찾던 중 물이 풍부한 이곳에 이주 정착하였다. 그 후 김해김씨는 1710년경 상태에서 이주하여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과평윤씨

시미마을



대머리마을



윤세연은 1900년경 하의에서, 남평문씨는 장산 두동에서 1940년경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장산도에서 가장 먼저 선박(船舶)을 대었던 뱃머리이며 옛날 대나무가 많이 있었고 면의 서쪽 끝머리여서 죽두(竹頭) 또는 대머리라 칭한다.

3.
대리

면 소재지인 도창리에서 남쪽으로 연결해 있는 마을로 남쪽에는 대성산이 우뚝 솟아 있다. 본래 지도군 장산면의 지역으로서 큰 마을이 되므로 큰물, 큰말, 큰동네 또는 대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창촌리, 신촌리, 대세리를 통합하여 대리라 해서 무안군 장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이곳은 선사 시대의 유적인 지석묘가 있고, 장산현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터만 있을 뿐이다. 현재 대리·창물[倉村]·새트물[新村]·대신터는 대리1리, 목에[項里]·삼배[三防]는 대리2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1) 대리마을 (대리1리)

▶ 마을형성

의령남씨가 나주에서 이주하여 가장 먼저 입향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630년경 김해김씨 김수매(金守棬)가 해남 우수영에서 살다가 이 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며, 그 후 밀양박씨 박정환(朴正煥)은 1703년경 해제 발산에서, 경주정씨 정덕빈(鄭德彬)은 1710년경 해남 송지에서 난을 피하여 이주하였다. 인동장씨 장인결(張仁傑)은 1770년경 함평, 해남을 거쳐 진도가사도에서 대리로 이주하였다. 장산초등학교 보건지소, 한전출장소가 자리하고 있다.

▶ 지명유래

면의 중앙에 있는 마을로 예로부터 마을이 크다 해서 큰물, 큰말, 큰 동네라 하여 대리라 하였다.

2) 창촌마을 (대리1리)

▶ 마을형성

김해김씨 김원석(金元碩)이 대리에서 살다가 1640년경 이 마을로 이주해 왔으며 밀양박씨, 평산신씨, 해주오씨, 전주최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장산현의 곳집이 있었다 하여 창촌(倉村), 창몰이라 하였다.

3) 목에마을(대리2리)

▶ 마을형성

해주최씨 최경보(崔敬輔)가 1788년 장산 하용에서 살다가 이주하였고 경주정

대리마을



목에마을



씨는 1820년경 팔금도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이주하였다. 또한 창원황씨 황두만(黃斗萬)은 1860년경 장산 어도에서, 의령남씨 남선명(南先明)은 1870년경 대리에서, 김해김씨는 1880년경 평사도에서, 장택고씨는 1890년경 도초도에서, 남평문씨 문도빈(文道彬)은 1924년 안좌 자라도에서 각각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장산목장을 관리하는 목부(牧夫)가 살던 곳으로 목장의 통문이었으며 목장의 말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중심지라 하여 목에[項里]라 하였다는 설과, 마을 남쪽 안 고랑이 물이 많아서 장산목장의 말들이 이곳에서 물을 먹던 곳이라 하여 목계(牧溪) 또는 모개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4) 삼배마을(대리2리)

▶ 마을형성

인동장씨 장치규(張致奎)의 삼형제 중 막내아들인 장진위(張鎭僞)가 다수 통머리에서 1900년경 삼방으로 이주 정착하였다. 그 후 장택고씨, 김해김씨, 밀양박씨가 이주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마을 앞 제방이 두 차례 붕괴되고 세 번째에 완공되었다 하여 삼방(三防) 또는 삼배라 하였다.

삼배마을





4. 도창리

면소재지로서 마을의 북쪽에는 토미산과 동으로는 부학산(浮鶴山)이, 서쪽으로는 아미산이 있다. 본래 지도군 장산면의 지역으로서 창고가 있어 도창(都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창리, 두동리, 오음리, 일부 지역을 합하여 도창리라 해서 무안군 장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장산면 소재지로서 면사무소, 중학교, 경찰 파출소,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예비군 면대본부가 자리하고 있다. 지석묘와 백제석실분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노거수림(老巨樹林)이 도창마을의 뒤편 국도변에 조성되어 있다. 현재 도창마을은 도창1리, 사창·두동은 도창2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1) 도창마을 (도창1리)

▶ 마을형성

수원백씨가 1560년경에 먼저 들어왔고 그 후 김씨가 입향하였다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하동정씨 정만적(鄭晩迪)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나주에서 숙모를 따라 압해 매화도에 옮겨 살다가 1690년경 도창마을로 이주하였다. 밀양박씨 박돌산(朴堧山)은 1695년경 해남 우수영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이주하였고 그후 김해김씨는 공수에서, 해주최씨는 하용에서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도창마을



사창마을



두동마을



▶ 지명유래

세금을 미곡으로 징수하여 저장했던 창고가 있었다 하여 도창이라 하였다. 도창(都倉)이라 추정되기도 하나 현재는 도창(道昌)이라 한다.

2) 사창마을 (도창2리)

▶ 마을형성

경주정씨 정우현(鄭宇賢)의 아들 4형제 중 막내아들인 정지성(鄭智誠)이 1690년대에 공수에서 사창마을로 이주 정착하였고 김해김씨 김종근(金重根)은 1900년경 사근마을에서 이주하였다. 진주강씨 강도삼(姜道三)은 죽두마을에서 이주하였으며 이후 완산이씨(完山李氏), 경주최씨(慶州崔氏), 해주최씨(海州崔氏), 하동정씨(河東鄭氏)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1948년 면사무소가 창촌 마을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 지명유래

조세(租稅)를 운반하던 배가 옛날 이 곳에서 환곡(還穀)을 실었으며 또한 환곡을 보관하던 곳집이 있는 곳이라 하여 사창(社倉), 또는 건너몰이라 하였다.

3) 두동마을 (도창2리)

▶ 마을형성

1630년경 해남 우수영에서 대리로 이거한 김수매(金守楸)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연고로 김성화(金聲華) 김여화(金汝華) 형제가 1860년대 초 우수영에서 두동으로 이주했다. 1790년경 나주임씨는 팽진에서, 하동정씨는 도창에서 1900년경에 정기범(鄭基範)이,



밀양박씨 박생봉(朴生奉)은 1920년경에 오음리 시미리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옛 향교터인 양원동(養院洞)에 장산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 지명유래

마을 뒤 아미산(배미산 137m)이 말[斗]에다 곡식을 가득 담아 놓은 형국이라 하여 두동(斗洞), 또는 두말이라 하였다.

5. 공수리

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재지와는 4km이다. 남으로는 팽진리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염전이 있으며 약사지 방조제 축조로 넓은 간척지와 접해 있는 마을로 고려시대 장산현(長山縣)의 공수전(公須田) 토지가 있어 공수촌, 공수라 하였고, 면소재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면(東面)이라고도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마초리, 중산리, 비소리를 통합하여 공수리라 해서 무안군 장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69년에서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무형문화재인 장산들노래가 1981년 제12회 남도문화제에 최우수상,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하중(夏中)발매기노래는 1987년 제16회 남도문화제에서 민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농요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 현재 공수·마초는 공수1리, 중산·비소는 공수2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공수마을



1) 공수마을 (공수1리)

▶ 마을형성

경주정씨 정학령(鄭鶴齡)이 양주 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자손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나주목 장산으로 이거(移居)토록 하여 아들 정산영(鄭山永)이 1570년대 초 공수마을로 와서 정착하였다. 그 후 김해김씨 김시일(金時鎰)이 1795년경 상용마을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이주하였고, 전주최씨는 비소에서, 제주양씨는 하의도에서 이주하였다. 이후 밀양박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고려시대 장산현의 공수전(公須田) 토지가 있어 공수촌, 공수라 하였고, 면소재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면(東面)이라고도 했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 뒷산의 모양이 양손을 두르고 있는 형국이어서 공수(拱手)라 하였다고 전하나 현재는 공수(公需)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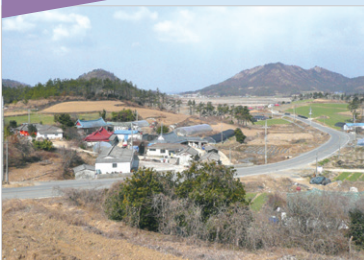
2) 마초마을 (공수1리)

▶ 마을형성

전주최씨 최반(崔潘)이 중용마을에서 1800년대 초 이 마을에 와서 보고 마을이 금계포란(金鷄抱卵)형으로 안주할 곳이라 하여 정착하였다.

김해김씨는 1810년경 안좌에서, 전주이씨는 1830년경 도초에서, 경주정씨 정민규(鄭敏圭)는 1930년경 공수에서 각각 이주하였다. 그 후 수원백씨, 남평문씨, 한양조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 앞에 있는 우물이 아주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고

마초마을





물맛이 좋아 1979년에 간이 급수 시설을 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지명유래

마을 앞산이 말[馬] 모양으로 아마식초(餓馬食草) 즉 배고픈 말이 풀을 먹는 형국이라 하여 마초(馬草) 또는 마추머리라 하였다.

3) 중산마을 (공수2리)

▶마을형성

경주정씨 정현율(鄭鉉律)이 중산 삼골의 문중 전답을 관리하기 위해 1825년 공수마을에서 이거 정착하였다.

경주김씨 김두헌(金斗憲)은 1860년경 하의 피섬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이주하였고, 한양조씨는 1920년경 비소에서, 김해김씨 김영건(金榮健)도 비소마을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이후 남평문씨, 인동장씨, 하동정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지명유래

길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 가운데에 산이 있어서 중산(中山)이라 하였다.

4) 비소마을 (공수2리)

▶마을형성

전주최씨 최계충(崔啓忠)이 1680년대 말 해남 송지면에서 피난하여 정착하였으며, 한양조씨 조종성(趙鍾聲)의 아들 3형제가 해남 송지에서 살다가 가혹한 세금

중산마을



비소마을





부담 때문에 가산을 버리고 맏아들 조일원(趙一元)은 완도로, 조덕원(趙德元), 조석원(趙石元) 형제는 1840년경 이 마을로 정착하였다. 이후 경주정씨 정경순(鄭京巡)은 1880년경 도창마을에서, 김해김씨는 평사도에서 이주하였고, 남평문씨, 남양제갈씨, 장수황씨, 창원황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비소 방조제(1951년)와 왓사지 방조제(1969년)의 간척 사업으로 논과 염전 240ha가 조성되어 농토가 넓은 지역이다.

▶ 지명유래

마을 뒷산의 지형이 비소모금(飛巢暮禽), 즉 저녁에 새가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새집 형국이라 비소(飛巢)라 부른다는 설과, 부유한 마을이 된다 하여 한자어를 비소(肥巢)라 한다는 설이 있다. 비소는 안[內]비소와 밖[外]비소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팽진리

면소재지에서 동남쪽 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곳은 북으로는 공수리, 서쪽으로는 다수리와 접해 있다. 사근 남쪽 1km 떨어진 곳에 백야도와 굴배섬이 있다. 본래 지도군 장산면의 지역으로서 팽나루 옆이 되므로 팽나루, 팽나리, 또는 팽진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호피리, 궁항리, 상용리, 중용리, 하용리, 사근리, 백야도 지역을 합하여 팽진리라 해서 무안군 장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이 곳은 남동쪽의 증심권으로 축강 선착





장이 있어 철부도선이 1일 3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현재 팽진·궁항·중용·신촌·두루메·호피는 팽진 1리, 상용·하용·사근·백야도는 팽진 2리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1962년 9월 1일 장산동초등학교가 개교하였으나,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1998년 3월 1일 장산초등학교 동분교장으로 격하되었고 2008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1) 팽진마을 (팽진1리)

▶ 마을형성

장수황씨 황윤주(黃崙周)가 오음마을에서 1760년경 이 마을을 보고 안주할 곳이라 하여 정착하였다. 밀양박씨는 1800년경 해남에서, 전주최씨 최광숙(崔光淑)은 1830년경 비소에서 전담을 장만하여 이주하였다. 그 후 전주이씨, 김해김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옛날 마을 앞에 팽나무군이 있었고 이곳에 나루터가 있어 팽진(彭津), 팽나리, 팽나루라 부르고 있다.

2) 중용마을 (팽진1리)

▶ 마을형성

1760년대 초 장수황씨 황철현(黃綴顯)이 백야도에서 이 곳에 이주하여 전담을 개간 정착하였고, 전주최씨 최우홍(崔禹洪)이 비소에서 마진도를 거쳐 1800년경 이주하였다. 그 후 김해김씨는 상용에서 전주이씨는 팽진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문가(文家)터

팽진마을



중용마을



두루메마을



궁항마을



라 불려 오던 곳에 1962년 9월 1일 장산동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 지명유래

마을 뒷산 지형이 용의 형국이고 마을의 터가 가운데에 형성되었다하여 중용(中龍)이라 하였다.

3) 두루메마을 (팽진1리)

▶ 마을형성

밀양박씨 박경신(朴京信)이 1860년경 장산 호피마을에서 이주 정착하였고, 김해김씨는 1900년경 해남 우수영과 상용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전주최씨 최팔만(崔八萬)은 대리에서 1940년경에, 이후 전주이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마을에 있는 산이 병풍을 펴놓은 것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어 두루메, 또는 주산(周山)이라 하였다.

4) 궁항마을 (팽진1리)

▶ 마을형성

도창 두동마을에서 김응규(金應奎)가 1810년대 초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자 이주하였고, 하동정씨 정관수(鄭寬秀)는 1932년 도창에서 살다가 이곳에 농토를 구입하여 정착하였다.

그 후 광산김씨, 박씨, 이씨, 황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지명유래

마을의 터가 활의 생김새와 같다 하여 궁항(弓項), 또는 활목이라 하였다.

5) 호피마을 (팽진1리)

▶지명유래

해남의 호랑이가 장산으로 건너왔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호랑이를 잡아 꺾질을 벗겨 주저앉혔다고 해서 호피, 또는 범주겐이라 하였다.

6) 상용마을 (팽진2리)

▶마을형성

1725년대 말 김해김씨 김호장(金灝章)이 해남 우수영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하동정씨는 도창에서, 평산신씨는 하태에서, 제주양씨는 안좌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지명유래

마을 뒷산의 지형이 용머리처럼 생겼고 마을의 터가 위쪽에 형성되어 있다 하여 상용 또는 용호동이라 하였다.

7) 사근마을 (팽진2리)

▶마을형성

김해김씨 김만성(金萬成)이 1693년 우수영에서 별세하자 부인 과평윤씨가 아들 형제를 데리고 공수마을에 이거하여 살다가 1700년대 초 김덕창(金德昌), 김덕순(金德順) 형제가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남평문씨

상용마을



사근마을





는 1880년에 이주하였고, 하동정씨 정선채(鄭仙采)는 도창에서, 장수황씨는 백야도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개척하기 위해 이거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1900년경에는 장산면의 관문으로서 정기 여객석이 해남 화원, 진도 소포, 조도, 신의면 상하태와 연결되었고 1930년대에는 목화수매 보관 창고가 있어 인근 도서가 이곳에서 목화 수매를 하여 아주 번창하였던 곳이다. 1962년 팽진 측강 선착장이 시설되면서 여객선 선착장이 폐쇄되었다.

▶ 지명유래

마을 동편 나지막한 산의 생김새가 낫시대형이고 마을 앞바다에 있는 홀아비여가 벽수[찌]의 형태이며, 고깃배와 소금배를 대던 뱃머리, 또는 남쪽 끝머리라 하여 벽수머리, 또는 마을 앞에 벽수[장승]가 있었다 하여 벽수머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마을 앞 바닷가의 모래가 가깝다 하여 사근(沙近)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8) 하용마을 (팽진2리)

▶ 마을형성

1680년대 말 해주최씨 최경천(崔擎天)이 충청도 보령에서 난을 피하여 이 마을로 들어와 둘러보고 안주할 곳이라 하여 정착하였으며, 몇 년 후 최경천이 충청도 보령으로 다시 간 뒤 돌아오지 않아 부인 김해김씨와 아들 최종원(崔宗元)이 터전을 잡고 살았다. 김해김씨는 1850년 공수에서, 경주정씨 정관길(鄭官吉)은 1940년경 중산마을에서, 전주이씨는 해남화원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마을 뒷산의 생김새가 용의 꼬리 모양이고 마을의 터가 아래쪽에 있다 하여 하용이라 하였다.





7. 다수리

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이곳은 북으로 대성산을 등지고 남으로는 바다에 연해 있다. 동쪽으로는 염전이 있으며 막금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래 지도군 장산면의 지역으로서 대성산 밑이 되므로 다수동, 다수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어도리, 월산리, 통두리, 막금도, 상용리 일부 지역을 통합해 다수리라 하여 무안군 장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69년 1월1일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대성산에는 산성이 남아 있고 완도와 진도를 연결했던 봉화터와 장산목장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현재 다수동은 다수1리, 어도[앤두]·성주골·막금은 다수2리, 통두·월산·신촌은 다수3리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이다.

1) 다수마을 (다수1리)

▶ 마을형성

1670년대 초 김해김씨 김원성(金元聲)이 대리에서 이곳이 물이 많고 생활 터전이 좋아 이주 정착하였고, 경주정씨 1780년경 해남에서, 밀양박씨는 1800년경 진도에서 이주하였다. 영양천씨는 1880년경 안좌에서 이주하여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다수마을



어도(앤두)마을



▶ 지명유래

마을 뒤 대성산의 숲이 울창하고 사철 물이 많이 흐른다 하여 다수동(多水洞), 다수라 하였다.

2) 어도(앤두) 마을 (다수2리)

▶ 마을형성

양천허씨 허심이 1770년 다수에서 도초 오류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는데 아들 허형이 1810년경 고향을 찾아 다시 장산 어도마을로 이주하였다. 김해김씨 김도태(金道泰)는 1870년경 성주골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하였고, 남평문씨 문태길(文台吉)은 1930년경 상용에서, 평산신씨는 대리에서, 경주최씨는 상태에서 이주하였으며 그 후 전주이씨, 금성오씨가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옛날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상태(현 신의면)와 이 마을에 나룻배가 건너다니던 나루터라 하여 어도(於渡) 또는 앤두라 하였다.

3) 성주골마을 (다수2리)

▶ 마을형성

1860년경 죽두에서 살던 김해김씨 김석민(金錫敏)이 이주하였다. 전주이씨는 하태에서, 인동장씨는 대리에서 상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정착하였다. 그 후 경주정씨는 대리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대성산에는 성(城)이 있어 옛날 성을 관리하는 성주(城主)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성주골 또는 성자동이라 한다.

4) 막금마을 (다수2리)

▶ 지명유래

섬에 금줄기가 있다 해서 막금이라 하였다고 하나, 금맥은 찾을 수 없고 현재는 막금(莫今)으로 표기 되어 부르고 있다.

5) 통두마을 (다수3리)

▶ 마을형성

1857년 인동장씨 장치규(張致奎)가 대리에서 살다가 남쪽 고개 너머에 위치한 통두의 땅을 개간하여 정착하였고, 김해김씨 김경선(金京先)은 1890년 말엽 새로운 곳을 찾아 다수마을에서 이주하였다. 장수황씨 황원주(黃源周)는 1900년경 백야에서 이주하였으며, 그 후 천안전씨, 진주강씨 등이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 지명유래

마을의 생김새가 통(桶)과 같이 생겼다 하여 통두(桶頭) 또는 통머리라 하였다.

6) 월산마을 (다수3리)

▶ 마을형성

1903년경 밀양박씨 박옥천(朴玉千)이 상용에서 살다가 월산의 달메 들에 전답을 매입하면서 이주 정착하였다. 이후 인동장씨는 통두마을에서, 김해김씨는 비소마을에서, 경주정씨는 중산마을에서 이주하여 지금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 지명유래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산이 서산으로 넘어가는 반달처럼 보이는 형국이라 하여 월산(月山) 또는 달메라 하였다.

7) 신촌마을 (다수3리)

▶ 지명유래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8. 마진리

면소재지로부터 동남쪽 8.2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동으로는 바다 건너 해남 화원면과 접해 있다. 또한 남쪽 바다 5km지점에 울도가 위치해 있다. 마진, 울도 자연마을로 구성된 이곳은 본래 진도군 조도면 마진도리[마진(馬津), 울도(栗島), 저도(楮島)]에 속하였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2호에 의해 신안군 장산면에 속하였다.

1980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3046호 시군 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마진도리 내 저도가 진도군 진도읍에 이속되었다. 현재 마진은 마진 1리, 울도는 마진 2리로 형성된 마을이다.

1) 마진마을 (마진1리)

▶ 마을형성

1635년 김해김씨 김형오(金亨五)가 나주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주위를 살펴보니 사방이 바다로 싸여 있어 어장이 풍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장산도가 있어 안주할 곳이라 하여 정착하였다.

전주최씨 최득오(崔得五)는 1780년경 장산 비소리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 정착하였다. 그 후 달성서씨, 이천서씨, 청주한씨 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진선착장에는 정기 철부도선은 1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낙도연결선인 여객선은 1회 왕복운항하고 있다.

▶ 지명유래

섬의 형태와 마을 뒷산의 바위가 말 모양이고 나루터가 있어 마진(馬津)이라 하였다.

2) 울도마을 (마진2리)

▶ 마을형성

1700년대 초 김해김씨 김석실(金錫實)이 해남 문내면에서 장산도를 향해 배를 타고 오던 중 이 섬에 잠시 정박하였다가 안주할 곳이라 하여 정착하였다. 밀양박씨는 1850년경 해남 문내면 학동에서, 경주김씨 김경민(金京敏)은 1860년경 해남 문내면에서 이곳에 처가가 있는 연고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의 주 소득원은 주위의 섬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 등 해초류이며, 마을 공동으로 해초류를 생산하고 있다.

▶ 지명유래

섬의 형태가 밤(栗)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옛날 섬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울도(栗島) 또는 밤섬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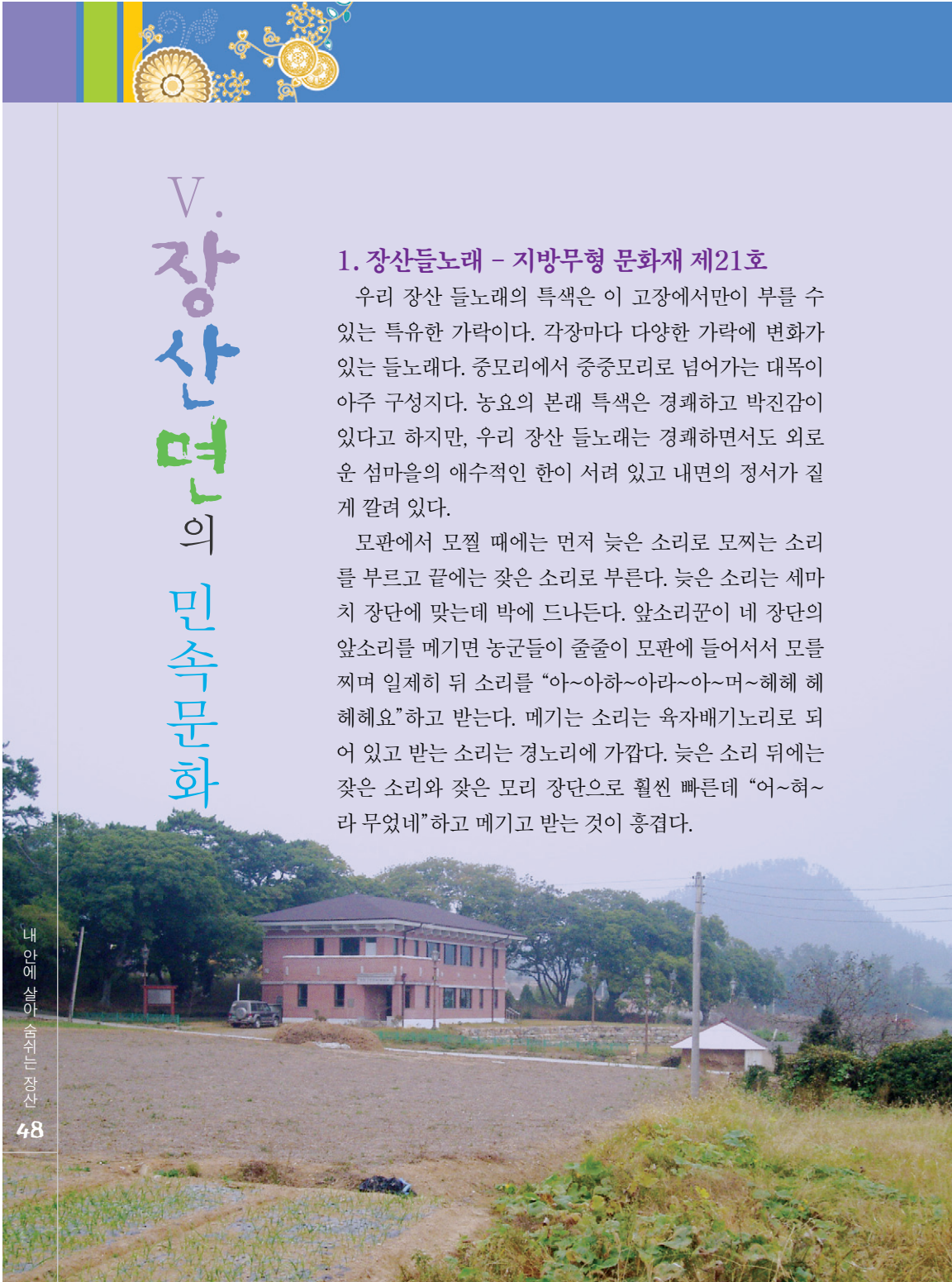


V. 장산면의 민속문화

1. 장산들노래 - 지방무형 문화재 제21호

우리 장산 들노래의 특색은 이 고장에서만이 부를 수 있는 특유한 가락이다. 각장마다 다양한 가락에 변화가 있는 들노래다. 중모리에서 중중모리로 넘어가는 대목이 아주 구성지다. 농요의 본래 특색은 경쾌하고 박진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장산 들노래는 경쾌하면서도 외로운 섬마을의 애수적인 한이 서려 있고 내면의 정서가 깊게 깔려 있다.

모판에서 모짚 때에는 먼저 낮은 소리로 모찌는 소리를 부르고 끝에는 잦은 소리로 부른다. 낮은 소리는 세마치 장단에 맞는데 박에 드나든다. 앞소리꾼이 네 장단의 앞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줄줄이 모판에 들어서서 모를 찌며 일제히 뒤 소리를 “아~아하~아라~아~머~헤헤 헤헤헤요”하고 받는다. 메기는 소리는 육자배기노리로 되어 있고 받는 소리는 경노리에 가깝다. 낮은 소리 뒤에는 잦은 소리와 잦은 모리 장단으로 훨씬 빠르는데 “어~혀~라 무엇네”하고 메기고 받는 것이 흥겹다.





장산들노래 전수관



모심을 때에는 다른 고장에서와 같이 상사소리 (농부가)를 부르는 데 훨씬 향토적인 가락으로 되어 있다. 곳거리장단에 맞고 앞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농꾼들이 모를 심으면서 “에헤여~루 상사디야요”하고 받는다. 고박 한 육자배기노래로 되어있으며, 끝에는 잦은 소리로 몰아간다.

논매기소리는 교환창으로 앞소리를 메기면 뒷소리를 약간 느리게 받으면서 논을 매는데 앞, 뒤소리가 어울려 아주 흥겹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은 앞소리와 후렴인 뒷소리로 불려지고 있다.

이 소리는 산타령 계통의 소리로 장단은 세마치장단으로 되어있다. 선율은 경노리로 명랑하고 경쾌하다. 뒷소리는 “어이꼬 난지나해~ 어이꼬 난지나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하고 길게 받는다. 김매기가 끝나면 ‘일어서기’라 하여 논을 밟고 다니면서 매우 빠른 소리로 몰아간다. 먼저 일체히 ‘오동추여~’ 하고 높이 소리 지르고 나서 “에헤야 에헤야 오동추야 달은 밝고 님오 생각이



절로만 난다”하고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다가 마친다.

질 꼬내기는 일하러 들에 나갈 때, 그리고 일을 마치고 마을로 들어올 때 부르는 길 소리이다. 질 꼬내기는 세마치장단으로 앞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춤추며 일제히 “에~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 농사야 에헤야”하고 뒷소리를 받으며 행진하는데 매우 흥겹다.

또한 소를 타고 노는 장원놀이는 그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농가의 상머슴을 소위에 태우고 한마당 흥겹게 노는 놀이다.

장산 들노래는 메김 소리와 받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어려운 농사일을 들노래로 승화시켜 고된 농사일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 나가는 선조들의 슬기로운 민요이다. 또한 서로 돕고 협동해서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는 장산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농요이다.

1981년, 제12회 남도문화제에 신안군 대표로 출연하여 최우수상 수상.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출연 국무총리상 수상.

1988년 12월 21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





모똥소리(늦은소리)

- 이때는 어느 뎨가 녹음방초 시절이라
- 이어쳐 디어쳐 와락와락 무어나 내세
- 소리로 봐서 맞지 말고
일거리 봐서 맞아 주시오
- 천금같은 두 풀개로
밀었다 달쳤다 무어나 내세
- 아나 농부 말 들어라
아나 농무야 내 말 들어라
-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후렴 : 아~아하~아라~아~
머~헤헤 헤헤헤요

모똥소리(작은소리)

- 무엇네 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 때만 찾아 돌아온데
- 이 논배미를 무어다가
- 장구배미로 건너가세
- 이 농사를 지어갖고
- 나라님께 바쳐보세
-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왔네
후렴 : 어~혀~라 무엇네

모심은소리(늦은소리)

- 상사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 때만 찾아서 돌아를 오는데

- 여기도 심기고 저기도 심기세
- 앞산은 점점 멀어나지고
- 뒷산은 점점 가까워진다
후렴 : 에헤여~루 상사디야요

모심은소리(작은소리)

- 우리 농부를 다 잘한다
- 저 건너라 갈미봉에
- 안개 끼고 비가 온다
- 허리에다 우장을 두르고
- 우리 농부들 다 잘한다
후렴 : 에헤여~루 상사디야요

논맨소리(늦은소리)

- 오동추야 달은 밝고
님오 생각 절로만 난다
- 천리 만리 떠나면 길에
고운 님을 여의웁고
- 어느 때나 오리까요 기다리고 기다리세
- 건너가세 건너가세
보리타리로 건너를 가세
- 둘러서라 둘러서라
어덩 밑으로 둘러를 서라
- 해는 지고 저문 날에
깨피 없는 소리를 몰고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정든 내 집으로 돌아간다

후렴 : 어이꼬 난지나해~어이꼬 난지나해~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논매고 일어서기(작은소리)

- 오동추어 ~
- 에헤야 에헤야 오동추야 달은 밝고 님오 생각이 절로만 난다
- 에헤야 에헤야 얼싸 좋다 널널이고나 자네 어찌 못 왔던가
- 분벽사창 ~
- 에헤야 에헤야 분벽사창 태복방에 살찐 큰애기 대집어졌다
- 에헤야 에헤야 얼싸 좋다 널널이고나 자네 어찌 못 왔던가

질꼬내기

- 오란 데는 밤에 밤에나 가고 동네 술막 술집은 아이고 낮에만 간다
- 잔등 너메 산에 살마주는 앵두같이 같이도 아이고 붉어나졌네
- 저 달 뒤에 저 빌 저 빌만 봐라 달만 잡고 잡고서 아이고 희롱만 한다
- 언떡 뻥떡 은비네 꼭지 담장 너메 님에서 아이고 날 속에 낸다
- 간다 간다 내가 돌아서 간다 님을 따라 따라서 아이고 내돌아간다.

후렴 : 에~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 농사야 에헤야

2. 하중밭매기 노래

육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장산 하중밭매기노래는 섬 지방 특유한 가락으로 이어진 농요다. 밭에서 김을 매면서 부르는 밭매기소리, 밭매고 일어서는 소리, 밭을 매고 피로를 풀기 위한 흥겨운 등덩기 타령으로 이어진다.

밭매기소리는 낮은 소리로 앞소리 중에서도 앞부분은 경노리에 가깝고 뒷부분은 육자배기노리이다. 앞소리의 중간에 아주 강한 소리로 앞소리꾼이 부르면 밭을 매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호미를 높이 쳐들었다 내리면서 “떠드렁 쿵덩”하고 소리를 치면서 호미로 장단을 치는데 아주 흥겹고 이색적인 농요다. 뒷소리는





장산 하중밭매기 노래 시연장면

“알이시구나 에헤여~허허~에야 에야 먼동~네로구나” 하고 받는다.

밭매고 일어서기는 매우 빠른 소리로 일제히 부르면서 밭에서 나온다.

등덩기 타령은 밭을 매고 물을 마시면서 등글게 앉아 물동이에 박 바가지를 얹어 놓고 손으로 박 바가지를 치면 ‘등등당당’ 특유한 소리가 나는데 이 장단에 맞추어 흥겨운 등덩기 타령을 부른다.

1987년 10월 24일 제16회 남도문화제에 신안군 대표로 출연하여 민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밭매기소리(늦은소리)

- 불러서라 불러서-라 <떠드렁 쿵덩> 노래 한 자리 불러나 서라
- 앞동산도 울긋불-긋 <떠드렁 쿵덩> 뒷동산도 울긋나 불긋
- 향아도아 단바람-에 <떠드렁 쿵덩> 꽃을 찾는 저 나비아
- 맑고푸른 창공중-에 <떠드렁 쿵덩> 종달새는 지나나 배배



- 버들가지 깊은숙-에 <떠드렁 쿵뎡> 금빛 옷을 덮쳐나 입고
- 피꿀피꿀 우는피-꿀 <떠드렁 쿵뎡> 봄을 혼자 즐기는고나
- 성개성개 말올타-고 <떠드렁 쿵뎡> 성재골을 들어나가니
- 옥사장아 문열어-라 <떠드렁 쿵뎡> 반달각시 만나나보자
- 니가무슨 반달이-야 <떠드렁 쿵뎡> 초생달이 반달이로구나
- 둘러서라 둘러서-라 <떠드렁 쿵뎡> 아리골로 둘러나 서라
후렴 : 알이시구나 에헤야~ 히히~ 에야~ 에야 먼동 ~네로구나

밭매기소리(작은소리)

- 육날미틀 집세기-도 <떠드렁 쿵뎡> 신다 두면 헌신이요
- 하늘에서 별난것-도 <떠드렁 쿵뎡> 구름 없는 탓이로고나
- 이내몸에 병난것-도 <떠드렁 쿵뎡> 입이 없는 탓이로고나
- 석세 배도 간직한-이 <떠드렁 쿵뎡> 금빛은빛 찬란하-고
- 깊은 산중 고드름-은 <떠드렁 쿵뎡> 봄바람에 녹아나낸다
- 요내 가슴 심회병-은 <떠드렁 쿵뎡> 남방화초가 녹아나낸다
후렴 : 알이시구나 에헤어~ 히히~ 에야 ~에야 먼동~네로고나

밭매고 일어서기

- 좋을래드라 좋을래드라 꾸엉에 신세가 좋을래드라
- 좋을래드라 좋을래드라 꾸엉에 신세가 좋을래드라
- 초록 수건 목에 걸고 비단대단 꼬리 달고 단풍드는 콩밭으로 아리감실 날아든다

등등기타령(늦은소리)

- 연사야 떡 갈아라 우편으로 편지하자
- 거명 떡과 혼 종우는 우리 부모를 만나련만
- 내려온다 내려온다 유-윤선이 내려온다
- 검고도 붉은 놨이 거들거리고 내려온다





- 문-밖에 섰는 이 파파급을 못해서
 - 문고리 잡고서 아리발발 떠난다.
 - 어째 와 어째 와 캄캄한데 어째 와
 -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 감자순 감자순 가가리가 감자순
 - 활목대 큰애기 아리 잘잘맨단다
 - 앞뜰에도 보리밭 뒤뜰에도 보리밭
 - 어따야 저 보리 다 시들어진단다
- 후렴 : 둥덩에당 둥덩에당 당기둥덩 둥덩에당

둥덩기타령(작은소리)

- 솜보신 솜보신 외-광목 솜보신
 - 신을 줄 모르면 말 일이지 신었다 벗었다 부싯집 맨든다
 - 오야오대 삼대중야 오십을 꼬갈에 사십을 장단에 미영배 사십을 목에 걸고
 - 개화 같은 봄바람은 개화가지를 끊어 들고
 - 만장 구름 속에 화상만 기리고 놀아 보세
- 후렴 : 둥덩에당 둥덩에당 당기둥둥 둥덩에당

3. 장산 씻김굿

장산 씻김굿은 집안에 병자가 있다든지 망자가 좋지 못하게 죽었을 때 죽은 이의 부정을 씻어 주고 한을 풀어 주어 극락으로 보내는 굿이다. 노래, 춤, 사설로 구성되는 이 굿은 무속의 세계관을 이해하게 된다. 신과 우리 사람과의 중계 역할을 하는 씻김굿의 진행자는 축원하고 제를 올리는 것으로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성스럽게 신을 받들고 인간의 안정과 가족의 번영을 위해 절대자에게 빌고 제를 모시는 일을 한다.

이 굿은 상을 입었을 때 상여가 집을 떠나 무덤까지 갈 때의 과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제라고 하겠다. 장산 씻김굿이 타지방과 다른 점은 굿당, 무복, 무구, 장식품 등이 소박하고 서민적이며 참신하다. 장신구가 흰색으로 이루어졌고 무복





길뒹음은 망자가 극락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곳이다.

역시 흰색 옷으로 꾸밈이 없고 자연 순응적이며 원시성이 물씬 풍긴다. 또한 섬이라는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씻김굿의 줄거리로 장산도에서만 갖는 독특하고 순수한 멋이 있다.

본래 장산도의 씻김굿은 망자의 소상이나 대상 때 하는 것이나, 이때 하지 못하면 좋은 날을 받아서 하는데 이 곳을 날받이 씻김굿이라 한다. 1980년 제11회 남도문화제에 신안군 대표로 출연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이 굿은 1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산 씻김굿 12석〉

- | | |
|---------------------|----------|
| 1. 안당 | 6. 고풀이 |
| 2. 초가망석 | 7. 뉘올림 |
| 3. 손굿 | 8. 씻김 |
| 4. 제석굿 | 9. 길뒹음 |
| ① 염불 ② 시주 ③ 성주 ④ 입춘 | 10. 망자놀이 |
| ⑤ 노적 ⑥ 엽 ⑦ 군웅 ⑧ 당산 | 11. 오방굿 |
| 5. 오구물림 | 12. 해원굿 |





4. 망자혼사굿

예로부터 삶의 터전이 바다였던 우리는 어업에 종사하다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 혼기를 앞두고 바다에서 죽은 총각을 ‘몽달이’라 한다. 또한 혼기를 앞두고 죽은 처녀를 ‘명두’ (손말명)라 한다. 몽달이와 명두를 혼인시키는 굿이 망자 혼사굿이다.



바다에서 죽은 총각의 혼을 육지로 건져올리는 것을 ‘진자리’에서 ‘마른자리’로 건진다 한다. 바다에서 혼이 떠돌거나 혼기를 앞둔 남·여가 연(緣)을 맺지 못하고 각기 홀로 지낼 때 살아 있는 가족과 마을에 질병과 액이 낄다는 신앙을 갖고 있기에 망자 혼사굿은 성대히 치러진다. 1988년 10월 28일 제17회 남도문화제에서 신안군 대표로 출연하여 강부자씨가 개인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5. 팽진리 성기바위 (彭津里 性器巖)



남자바위



여자바위

팽진리 마을 호피산에 2개의 성기바위가 있다. 해발 약 50m에 위치하고 있는 남자바위는 호피산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암으로 되어 있다. 형태는 타원형의 선돌과 돌무더기로 되어 있다. 규모는 높이 앞면 7~8m·뒷면 5~6m, 둘레 약 25m, 직경 7~8m이다. 해발 약 50m에 여자바위는 남서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암으로 되어 있다. 형태는 산 중턱의 평평한 바윗돌로 돌무더기와 함께 있다. 두 개의 성기바위 사이의 거리는 약 80m 정도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원하는 여인들이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성기바위 앞에 삼색실과를 차려 놓고 촛불을 켜고 빌었다고 한다.



6. 다수리 막금제당(多水里 莫今祭堂)



다수리 막금마을 남동쪽에 야트막한 당산(47.4m)이 있다. 이곳은 막금마을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에 마을의 평안과 제액(除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는 곳으로, 오래된 활엽수림으로 둘러져 있고, 그 내부에는 상·하 140cm의 간격을 둔 2개의 석단(石壇)이 있다.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막금운영회'가 매년 2회 즉 6월과 12월에 정기총회를 여는데 이중 12월의 총회에서 제일(祭日)과 제관(祭官)을 결정한다. 제신은 산신과 당산할아버지·당산할머니이다. 석단 중 맨 위에 있는 것은 산신의 단이며, 아래에 있는 것은 당산할아버지·당산할머니의 단이다. 현재까지 주민들은 당산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가구 수가 현저히 줄어 7가구 밖에 남지 않아 음식장만 등이 어려워 제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제단은 손상되지 않고 잘 남아있다.

7. 마진리 울도제당(馬津里 栗島祭堂)

장산도의 축강 포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면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12km되는 지점에 울도가 있다. 울도마을의 당제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새벽 3~4시 사이



에 거행된다. 주민들이 신봉하는 당신은 당할아버지·당할머니·백야도신(白也島神)이다. 당집은 마을 뒷산 능선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다. 구조는 돌로 된 벽에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의 단칸집이며 과거에는 내부에 나무로 짠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제기들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천정 서까래에는 ‘당미(堂米)’라 하여, 한줌 가량의 쌀을 천으로 싸서 매달아 놓았다. 한편 팽나무·소나무 등이 우거진 당집 주위에서 10m정도 아래에 당샘이 있고, 그 옆에 당제 때 제관들이 숙식하는 노지(露地)가 있다. 당제의 제관은 2명으로서 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당주’, 그의 보좌역을 ‘당조수’라 부른다. 제의 진행은 헌작(獻酌)·삼배(三拜)·헌작(獻酌)·삼배(三拜)·첨작(添酌)·헌차(獻茶)·소지(燒紙)의 순이다. 당주는 당제를 마치고 당조수와 함께 마을로 내려오면서 뒷산 이곳저곳에 제물을 조금씩 던져주면서 헌식(獻食)을 한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당주와 당조수는 잠시 휴식을 하고, 날이 새면 주민들과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 마을 당제는 끝난다. 현재 당집은 잘 남아 있으나 10여 년 전부터 당제는 지내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가구 수가 줄어들어 제물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VI.
장산
팔경

1. 五音牧笛 (오음목적)
오음산 목동의 피리소리
2. 峨嵋半月 (아미반월)
아미산에 뜨는 반달
3. 多水垂楊 (다수수양)
다수리의 수양버드나무
4. 閒雲浮鶴 (한운부학)
부학재에 한가로이 흰
구름처럼 높이 뜬 학
5. 沙近白鷗 (사근백구)
사근마을 백사장 위로 나는 갈매기
6. 彭津落雁 (팽진낙안)
팽진리 모랫벌에 내려앉은 기러기
7. 龍湖歸帆 (용호귀범)
용호로 돛단배가 돌아가다
8. 春鳥飛巢 (춘조비소)
봄새가 둥지로 날아든다

美哉長山八景
 五音牧笛 祖赤山 日暮峨眉半月暎
 多水垂楊 團綠邑 閑雲浮鶴 換天顏
 沙近白鷗 浮濠口 彭津落雁 對人關
 龍湖歸帆 顧陂掛 春鳥飛巢 結柳關

美哉長山八景
 五音산 목동 피리 소리
 日暮峨眉半月 夕陽에 떠는 반달
 多水垂楊 團綠邑 閑雲浮鶴 換天顏
 多水의 垂楊이 團綠邑에 閑雲이 浮鶴을 換天顏
 沙近白鷗 浮濠口 彭津落雁 對人關
 沙近에 白鷗이 浮濠口에 對人關
 龍湖歸帆 顧陂掛 春鳥飛巢 結柳關
 龍湖에 歸帆이 顧陂에 掛 春鳥가 飛巢에 結柳關

각시 일명 모(蘇明)의
 2007. 11

장/산/팔/경/유/래
 장산의 아름다운 명승지 8곳을 칭송한 내용으로 구전에 따라
 내용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함.



VII. 기관 및 단체

구분	기관단체명	소재지	설립년도	연락처	비고
1	면사무소	도창 662-1	1917. 10. 01	061)271-2532	
2	장산중학교	도창 780	1947. 11. 29 1982. 03. 26	061)271-2535	사립 공립
3	장산초등학교	대리 236	1932. 05. 06	061)271-2546	
4	막금분교	다수 832	1957. 6. 20 1998. 3. 1 폐교		
5	장산동초등학교	팽진 921	1962. 09. 01 1998. 03. 01 2008. 03. 01	061)271-2669	분교
6	백야분교	팽진 1409	1948. 5. 15 1993. 5. 31		폐교
7	마진분교	마진 117	1950. 4. 5 1997. 4. 1		폐교
8	율도분교	마진 22	1950. 2. 21 1996. 3. 1		폐교
9	목포경찰서 장산파출소	도창 669-1	1920.	061)271-2612	
10	장산우체국	도창 772-11	1962. 05. 09	061)271-2788	
11	장산농업협동조합	도창 704-1	1970. 09. 25	061)271-2516	
12	향토예비군 장산면대	도창 535-6	1968. 04. 03	061)271-5113	
13	보건지소	대리 386-1	1969.	061)271-2534	
14	농업기술센터 장산지소	도창 662-1	1969.	061)271-2504	
15	한국전력 장산출장소	대리 374	1979. 10.	061)271-2603	
16	KT 장산지소	도창 산 1-1	1970.	061)271-2560	



VIII. 장산면관광안내자료

장산도 여객선 운항 안내

구분	항로	출발시간	소요시간
차도선	장산 축강 → 목포 (신안페리)	08시 50분	01시간 20분
		13시 00분	
		17시 00분	
차도선	장산 북강 → 목포 (조양페리)	08시 00분	01시간 20분
		13시 30분	
		17시 10분	
차도선	목포 → 장산 축강 (신안페리)	06시 40분	01시간 20분
		10시 30분	
		14시 30분	
차도선	목포 → 장산 북강 (조양페리)	06시 40분	01시간 20분
		10시 00분	
		14시 00분	

※계절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문의전화 : 조양페리 (061-244-0038), 신안페리 (061-242-9542)

▶ 주요 선착장

북강선착장 / 장산면 오음리	비소선착장 / 장산면 공수리
축강선착장 / 장산면 팽진리	궁항선착장 / 장산면 팽진리
다수선착장 / 장산면 다수리	백야선착장 / 장산면 백야도
앤두선착장 / 장산면 다수리	막금선착장 / 장산면 막금도
사근선착장 / 장산면 팽진리	마진선착장 / 장산면 마진도
솔목선착장 / 장산면 팽진리	율도선착장 / 장산면 율도



주요 관광자원

▶ 주요 시설

오음리 태양광발전소/장산면 오음리
 비파나무공원/장산면 오음리
 다목적광장/장산면 대리
 대리 게이트볼장/장산면 대리
 장산도 들노래전수관/장산면 도창리/061)271-2511
 도창리 분재공원/장산면 도창리
 장산팔경 시비/장산면 도창리
 독립투사 기념비/장산면 도창리
 팽진리 게이트볼장/장산면 팽진리
 다수리 소공원/장산면 다수리
 율도 태양광발전소/장산면 마진리

▶ 낚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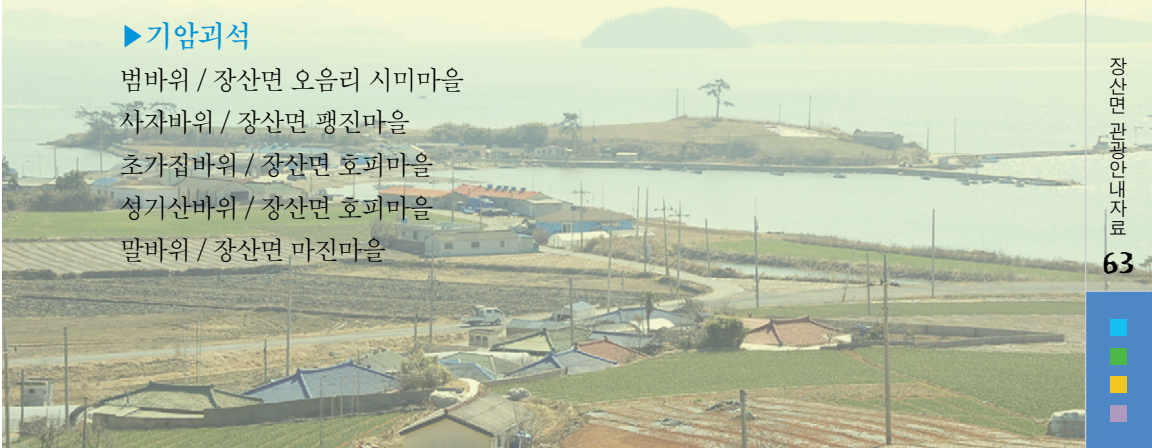
가세섬, 섬막금, 차돌이, 진섬, 마진도, 소류지 등 / 농어, 감성돔

▶ 등산

대성산 / 장산면 다수리 / 196m
 오음산 / 장산면 오음리 / 208m
 아미산 / 장산면 도창리 / 137m

▶ 기암괴석

범바위 / 장산면 오음리 시미마을
 사자바위 / 장산면 팽진마을
 초가집바위 / 장산면 호피마을
 성기산바위 / 장산면 호피마을
 말바위 / 장산면 마진마을





▶ 해수욕장 및 해변

새끼섬해수욕장 / 장산면 새끼섬
 굴배도해수욕장 / 장산면 굴배도
 마진도해수욕장 / 장산면 마진도
 백야도해수욕장 / 장산면 백야도
 발막고지해수욕장 / 때끝해수욕장
 소호지해수욕장 / 두두리해수욕장
 가세섬해수욕장 / 벽수머리해수욕장
 언덕개해수욕장 / 투망개해수욕장
 방죽개해수욕장 / 진박개 해수욕장
 큰골해수욕장 / 솔목해수욕장 / 서도내기해수욕장

편의시설 연락처

하나로마트 / 장산면 대리 / (061) 271-2568
 장산농협주유소 / 장산면 대리 / (061)271-0836

▶ 숙박시설

황소여인숙 / 장산면 대리 / (061) 271-8500 / 객실 4
 신안여인숙 / 장산면 대리 / (061) 271-2507 / 객실 4
 백 수 장 / 장산면 오음리 / (061) 271-9291 / 객실 7

▶ 음식점

우리식당 / 장산면 팽진리 / (061) 271-2793
 동화식당 / 장산면 도창리 / (061) 271-2906
 강촌식당 / 장산면 오음리 / (061) 271-2677
 현대식당 / 장산면 도창리 / (061) 271-2576
 황소가든 / 장산면 대리 / (061) 271-8500
 축강식당 / 장산면 팽진리 / (061) 271-2773
 북강식당 / 장산면 오음리 / (061) 271-4649
 꽃님이네식당 / 장산면 도창리 / (061) 271-2866
 장산회센터 / 장산면 팽진리 / (061) 271-2011
 진미식당 / 장산면 도창리 / (061) 271-3883
 육천식당 / 장산면 대리 / (061) 271-3088



전서면 관광지도



볼거리

- * 왕 빛꽃 길
- * 노거수림
- * 도창리 분재공원
- * 바파나무 공원
- * 다수리 해안도로
- * 바티와 작은섬

특산물을

개운마늘

미늘, 양파, 고추, 깻벌에 어문 쌀, 유겨, 김, 낙지, 브로콜리, 브로콜리

먹을거리

1 - 12월 : 낙지
1 - 12월 : 송어
5 - 11월 : 농어



장/산/면/기/해/설



1. 청색바탕 : 사면이 바다이고 풍요로움을 상징



2. 백색 ㅈ : 장산의 첫글자 ㅈ을 뜻함.



3. 녹색山 : 장산의 산(山)을 뜻함.



4. 녹색무궁화잎 : 7개 법정리(오음, 대리, 도창, 공수, 팽진, 다수, 마진)를 의미하며 흰 묶음띠는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뜻함.



5. 백색 원 : 면민의 순결과 장산도(섬)를 의미하며 녹색의 7개 무궁화잎이 양옆을 감싸고, 하단의 흰 묶음 띠는 면민이 한데 뭉쳐서 농업 및 수산업을 발전시켜 무궁한 부와 지역 개발에 전진함을 의미함.

Sea Tradition Agriculture Road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